

브렉시트의 ICT 분야 국제통상 차원의 시사점

■ 박 은 지*

한국 시간 기준 지난 6월 24일 영국의 EU 탈퇴, 일명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의 결과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국의 EU 탈퇴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됨에 따라 세계 각 국은 그 사회적, 경제적 파장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브렉시트의 영향이 단기간에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했지만, 영국 및 EU 경기 침체, 국제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증대 등 전세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브렉시트가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ICT 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사전 분석을 통해 우리 ICT 산업 진흥 및 정책 추진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목 차

<p>I. 브렉시트 개요 / 2</p> <p>1. 논의 배경 / 2</p> <p>2.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 3</p> <p>3. 향후 탈퇴 절차 / 4</p> <p>II.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 4</p> <p>1.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 4</p> <p>2. 우리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5</p> <p>III. 영국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 6</p> <p>1. 주요 기관 전망 / 6</p> <p>IV.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 7</p>	<p>1. 한국의 대(對) 영국 ICT 수출에 미치는 영향 / 7</p> <p>2. 한국의 대(對) 영국 ICT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 / 10</p> <p>3. 영국의 대(對) 한국 ICT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 / 11</p> <p>V. 한-EU FTA 등 국제무역협정 관련 ICT분야 현안 점검 / 12</p> <p>1. IT 상품 분야 / 12</p> <p>2. 방송위성중계서비스 추가 시장개방 관련 / 12</p> <p>3. 방송서비스 분야 공동제작협정 관련 / 13</p> <p>VI. ICT 분야 정책적 시사점 / 15</p> <p>VII. 결 어 / 17</p>
---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472, ejpark@kisdi.re.kr

I. 브렉시트 개요

1. 논의 배경

브렉시트(Brexit)는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며, 2015년 5월 영국 총선에서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가 2017년 이전에 EU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유럽통합에 부정적인 영국의 전통적 성향을 배경으로 유럽 재정 위기 이후, EU 분담금 부담 증가, 역내무역 적자 확대, 이민자 복지지출 증가 등 EU 회원국으로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EU 가입을 통해 얻는 경제적 실익에 대한 불만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영국은 2014년 기준 EU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분담금(113억 유로)을 부담하고 있으나, 순수혜 적자규모(49억 유로)는 회원국 중 3번째로 큰 구조이다.¹⁾

<표 1> EU 주요 회원국별 예산 분담금(2014년 기준)

(단위: 억 유로)

EU 회원국	EU 예산 분담금	분담금 운용 수지
독일	258	-155
프랑스	196	-72
이탈리아	144	-45
영국	113	-49

자료: EU commission, 무역협회(2016) 자료 저자 재정리

또한 영국의 역내무역 적자규모는 201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역외 적자의 2배를 상회하고 있으며, 순이민자 유입 수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약 18만에서 2015년 33만 명을 기록, GDP 대비 공공부문 순부채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시리아 사태로 난민 수용문제가 대두 되면서 이민자

1) 무역협회(2016. 6. 16), p.2.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부담, 내국인 고용시장 경쟁심화 등을 이유로 이민 제한에 대한 여론이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여론이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 최종 탈퇴 결정을 야기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²⁾

〈표 2〉 영국 역내 수지, 이민자 유입, 공공 순부채 추이

년도	역내무역 상품수지 (억 파운드)	순이민자 유입 (천명)	공공부문 순부채 (%, GDP 대비)
2012	565	177	79
2013	671	209	81.1
2014	796	313	84.0
2015	887	333	84.8

자료: 영국 통계청, 무역협회(2016) 자료 저자 재정리

2.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브렉시트는 EU 역내 교역량 감소,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비 및 투자 감소 등 유럽 경제 성장 전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주요국의 주가하락, 파운드화 및 유로화 약세 등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 및 신흥국 통화 약세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겠지만, 영국 외 다른 회원국들의 EU 탈퇴 시도와 같은 도미노 Exit은 EU와 세계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누리던 역내 교역 자율화와 모자(母子)회사 간 면세 혜택 소멸, 파운드화 평가 절하 등에 따라 영국 경제의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³⁾

2) 무역협회(2016. 6. 16), p.2.

3) 무역협회(2016. 6. 16), pp.5~6.

3. 향후 탈퇴 절차

리스본 조약 제 50조에 따른 탈퇴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영국이 유럽정상회의(The European Council)에 탈퇴 통고, ②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가 권고안 제시, ③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 협상개시 허가, ④ 집행위와 영국정부 간 2년간 협상(통상, 금융, 조세, 이민, 외교, 안보 분야별 폐기·신설), ⑤ 협상타결 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각료이사회 동의하면 공식탈퇴 완료 ⑥ 非동의 시 협상 기한연장 또는 자동탈퇴 등의 절차를 따른다. 동 조항은 실제 발동된 전례가 없어,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절차와 기간 변경이 가능하며, 실제 정식 탈퇴까지는 2~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

II.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1.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브렉시트 결정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한-EU FTA에서 체결한 특혜관세가 영국과의 무역에서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영국은 EU 및 제3국과 각종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탈퇴 완료 이후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 하였던 모든 무역 및 투자 협정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참고로 현재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들은 한국을 비롯하여 53개 경제권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2년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한-영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영국의 EU탈퇴가 확실시 되면, 기존 영국 수출 시 적용받던 특혜 관세가 사라지고 WTO 양허세율(bound rate) 범위 내에서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실행세율(applied rate)을 부과 받게 된다.⁵⁾

4) 국제금융센터(2016. 6. 24), p.3.

5) 무역협회(2016. 6. 16), p.6.

2. 우리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⁶⁾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될 경우에는 기존 영국 수출 시 적용되던 특혜관세가 2년 후 사라지고 영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주요 수출제품들도 관세를 부과 받게 되어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 하락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한국과의 교역 비중은 1.2%이며, 한국의 對 영국 수출비중은 1.4%(16위)로 낮은 수준이다. 영국 시장에서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대만, 인도 등의 국가들과 경합 중인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들(제트유, 운송기계 부품, 섬유, 석유화학제품 등)은 0%로 적용받던 관세효과가 사라지면 對 영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영국과 무관세로 교역하던 EU 역내 국가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관세장벽에 직면하게 되어 상기 언급한 부정적 영향의 일부 상쇄가 가능할 것이다.⁷⁾

[참고] EU의 특혜무역협정 체결 현황

발효	FTA: OCTs, EFTA, 페로제도, 한국, 우크라이나 EEA: 스위스를 제외한 EFTA 3개국과 EU 28개국 AA: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자치정부,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칠레, 레바논, 이집트, 알제리, 페루·콜롬비아, 중미 조지아, 몰도바 SAA: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CA: 시리아 / CU: 안도라, 산마리노, 터키 / TDCA: 남아프리카공화국
타결	FTA: 싱가포르, 베트남 / AA: 에콰도르 / CETA: 캐나다
협상중	FTA: 태국, 말레이시아, MERCOSUR / TTIP: 미국 / EPA: 일본 / BTIA: 인도
협상중단	FTA: GCC, 리비아, ASEAN, / AA: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검토중	필리핀,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대만 이란

주: 2016년 현재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다만 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따른 구매력 하락과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영국의 여

6) 무역협회(2016. 6. 16), pp.7~9.

7) 유예기간 동안 한국과 EU 모두 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가정 시

러 가지 혜택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불안요인이 영국 내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져 우리 수출기업들의 對 영국 수출의 감소 가능성이 존재한다. OECD, 영국 재무부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EU 잔류 대비 경제 성장이 단기적으로 1.3~3.3%p, 중장기적으로 0.1~7.5%p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년간의 유예기간으로 단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으나, 외국기업의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영국 내 해외법인의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이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무역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Ⅲ. 영국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기관 전망

글로벌 IT 시장 전문 조사 기관인 IDC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IT 지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브렉시트가 영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mildly negative’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IT 산업이 클라우드, 모바일, 분석 및 소셜미디어 기술 등 ‘3세대 플랫폼’에 대한 수요 동력이 개별 국가의 경제 사이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변수이기 때문이라고 IDC는 설명하고 있다.⁸⁾ Gartner의 경우 브렉시트가 기업신뢰도 하락 및 물가 상승을 야기 시켜 영국을 비롯 서유럽 및 전 세계 IT 지출을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초 가트너는 영국의 IT 지출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1,796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IT 지출이 2~5% 감소할 것이라고 재전망하고, 서유럽 전체 지출 역시 감소하여 0.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계 IT 지출의 경우 기존 전망인 1.5%에서 1.2%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영국 및 서유럽에 비해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⁹⁾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 영국 내 IT 전문가 협회인 Tech London Advocates의 자체

8) IDC(2016. 4. 15)

9) Computerworld(2016. 6. 24)

설문 결과, 영국 IT 전문가의 약 87%가 브렉시트에 반대했으며, 반대의 주요 원인은 EU 역내 시장 기반 약화 우려, EU 역내 IT 인재 채용의 어려움, 그리고 데이터 활용 관련 제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⁰⁾

IV.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영국의 ICT분야 수출입 규모 및 투자 규모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ICT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나, 환율 변화 등 거시경제적 변수가 기진출한 ICT 기업의 성과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ICT업계 관계자들은 삼성, LG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업계를 제외하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고조 및 영국 및 EU 경기 침체가 악화될 경우 ICT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1. 한국의 대(對) 영국 ICT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한국의 ICT 분야 수출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7%, 수입 비중 역시 0.7% 수준으로 우리의 ICT 분야 대외 교역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며, 2012~2014년 역시 수입 비중 0.6~0.7% 대, 수출 비중 0.7~0.8% 대로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표 3>과 같이 한국의 대 EU ICT 수출입 규모 역시 한국의 ICT 대외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 EU ICT 수출 규모 역시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015년의 경우 EU의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액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기 침체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브렉시트로 인해 증폭될 EU시장의 불확실성이 한국의 대 영국 및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의 ICT 대외교역이 아시아 지역에 치중되어 있

10) Guardian(2016. 3. 4)

고, 영국과 EU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으로 고려할 때 그 영향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3〉 한국의 대 영국 ICT 수출입 동향(2012~2015년)

년도	수입				수출			
	금액 (백만 달러)		비중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영국	EU	영국	EU	영국	EU	영국	EU
2015	631	6,255	0.7%	6.8%	1,139	10,145	0.7%	5.9%
2014	629	6,698	0.7%	7.7%	1,390	13,248	0.8%	7.6%
2013	580	6,645	0.7%	8.2%	1,171	13,483	0.7%	8.0%
2012	476	5,924	0.6%	7.6%	1,081	13,508	0.7%	8.7%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ICT 수출입 동향”

다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진행한 5월 ICT 기업경기조사 결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및 브렉시트 가능성, 국제유가 등 따른 대외 불안요인으로 인해 2016년 5월 ICT 업황(BSI)이 86으로 전월(88)대비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브렉시트가 최종 결정된 6월 이후 한국 ICT 산업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對 영국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영국은 한국의 최대 지상파방송프로그램 수입국가로 2014년 기준 전체 수입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프로그램의 영국 수출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높은 방송프로그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4> 한국의 대 영국 지상파방송 수출입 현황(2006~2014년)

구분	수출입금액(천\$)		국적비중(%) (수출입 금액 기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4년	27.5	1,884.5	0.0	33.9
2013년	0	1429	0	46.0
2012년	41	1,467	0.03	32.79
2011년	0	1,497.6	0	35.2
2010년	0	1,548.7	0	35.5
2009년	4.7	842	0	23.3
2008년	29	1,802	0.03	32.1
2007년	1.5	1,362.0	0	14.63
2006년	116.6	1,502	0.12	9.64

자료: KISDI(2007~2015),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비고: 해외교포방송지원과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과 포맷 판매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

<표 5> 한국의 대 영국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출입 현황(2006~2014년)

구분	수출입금액(천\$)		국적비중(%) (수출입 금액 기준)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14년	120.1	1,282.2	0.3	2.4
2013년	95	1624	0.2	1.5
2012년	101.53	2,582.20	0.4	2.1
2011년	0	2,193.3	0	1.8
2010년	0	2,009.6	0	2.1
2009년	0	2,218	0	1.9
2008년	0	851	0	1.2
2007년	0	2,793.1	0	5.02
2006년	0	3,053.2	0	5.36

자료: KISDI(2007~2015),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비고: 해외교포방송지원과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과 포맷 판매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입 현황

또한 EU기금을 활용한 ‘동유럽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총 3,518억 유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브렉시트의 여파로 EU 회원국의 추가 탈퇴 논의가 가속화될 경우, ICT 분야 수요를 촉진시킬 해당 프로젝트의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해 해당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가지고 준비하던 우리 ICT 인프라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정부 차원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의 대(對) 영국 ICT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Outward FDI)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의 대 영국 해외투자 누적 투자액은 4,267만 달러로 한국의 전세계 ICT 분야¹¹⁾ 투자총액의 0.57%를 차지할 뿐 투자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나, 영국령 버진군도, 영국령 인도양 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할 경우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의 IC 분야 주요 투자 대상국은 미국(비중 37.6%), 일본(15.4%)이다.

〈표 6〉 한국의 대 영국 ICT 분야 해외투자 현황

구분	투자 금액(천 불)	비중(%)
영국(영국령 포함)	42,689(234,310)	0.57%(3.1%)
미국	2,813,014	37.6%
일본	1,156,235	15.4%
중국	342,414	4.5%
벨기에	90,076	1.2%
네덜란드	162,494	2.1%
아일랜드	51,138	0.68
전 세계	7,468,913	1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업종별 해외투자현황”.

11)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산업분류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를 포함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 디렉토리 자료에 따르면, ICT 분야 영국 기진출 기업은 삼성전자 디자인연구소, 삼성전자 SERI, 삼성SDS유럽법인 등 세 개 업체로 대기업 위주의 제한적 진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7> 2014년 ICT 분야 영국 기 진출 한국기업 목록

기업명	진출형태	투자형태	진출연도	취급분야
삼성전자 SDE	연락사무소	단독	2000	디자인연구소
삼성전자 SERI	연락사무소	단독	1994	통신연구소
삼성SDS유럽법인	생산법인	단독	2000	IT

자료: KOTRA,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2014

영국을 EU 지역 본사로 진출해있는 해당 대기업들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EU 역내 교역 자유화 및 면세 혜택 등 제도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 및 유예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다른 EU 역내 국가로 지역 본사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영국의 대(對) 한국 ICT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Inward FDI)

2011년에서 2016년 2분기까지 영국의 대 한국 ICT 분야 외국인투자 비중은 전기 전자 제조업의 경우 0.7%, 통신서비스업의 경우 0.39%, 문화방송서비스업의 경우 0.02%, IT서비스업의 경우 0.44%로 전체 외국인투자 대비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영국 투자자들의 불안정 자산 투자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 가능함에 따라, 신흥국인 한국 투자 자본이 금, 달러, 엔화 등 안전 자산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ICT 분야 영국 투자 자본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투자 자본 이탈에 따른 충격이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영국의 대 한국 ICT분야 투자

(단위: 천 달러)

구분		전 산업	전기전자 (제조업)	통신 (서비스)	문화방송 (서비스)	IT (서비스)
영국	신고금액	2,225,354	43,373	367	96	24,459
	전체 대비 비중	2.3%	0.7%	0.39%	0.02%	0.44%
전체 신고 금액 (2011~2016. 2분기)		94,940,754	6,201,302	94,215	592,923	5,603,35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V. 한-EU FTA 등 국제무역협정 관련 ICT분야 현안 점검

1. IT 상품 분야

그동안 한-EU FTA를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던 우리 수출제품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 무선전화기, 전자기기 부품 등은 대부분의 IT 상품의 경우 FTA와 관계없이 영국으로 무관세 수입되고 있어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¹²⁾ 또한 2년 유예기간 동안 한-EU FTA 혜택 유지를 위한 별도 협정 체결하거나, 유예기간 내 체결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영국 자체적으로 WTO 재가입 및 정보기술협정(ITA) 재가입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존에 영국과 누리던 IT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은 지속 유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방송위성중계서비스 추가 시장개방 관련

한-EU FTA를 통해서 한국은 ‘방송중계용 국제위성전용회선임대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추가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통신사업자가 방송중계용 국제위성 전용회선임대서비스를 우리나라에 국경간 공급할 경우, 국내 사업자와의 상업적 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참고로 한-EU FTA 양허상 방송중계용 국제

12) 무역협회(2016. 6. 16), p.8.

위성전용회선임대서비스는 “위성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방송사간 중계 링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정의하여 방송서비스가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양측은 국경간 공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지점간의 방송중계용 위성전용회선임대서비스는 양허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즉 미개방)하여 국내위성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당시 한국과 EU는 상업적 약정 체결 의무로 인한 발생했던 추가적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방송 중계부문의 가격인하를 유도해 이에 따른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고자 추가 개방에 합의하였다. 예를 들어, 추가 개방 전 국내 방송사가 EU의 축구경기 중계신호를 수신하고자할 때, EU에서 전송하는 방송중계용 위성신호를 바로 수신하지 못하고 한국 영역 내 KT 등 별도의 위성통신서비스 사업자(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체결해야 했지만, 해당 양허사항 발효 이후부터는 불필요한 상업적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영국 방송신호라 할지라도 EU 역내 방송중계용 위성전용회선임대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신호를 전송한다면 여전히 한-EU FTA 추가 개방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 브렉시트로 불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방송중계용 임대회선은 신호의 안정적 제공 차원에서 현재 위성보다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산업 현실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한 해당 시장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 소비자 역시 영국사업자 입장에서 여전히 추가 개방 혜택을 누리고 있는 EU 회원국 방송중계서비스 사업자와 경쟁구조임을 고려할 때 가격을 무리하게 인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 차원에서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방송서비스 분야 공동제작협정 관련

현재 한-EU는 문화협력의정서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될 경우, 한-영국 공동제작물을 상기 한-EU

협정에 근거하여 영국 내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및 그밖에 공동제작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혜택이 영국에 대해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의 영국시장 진출의 기회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¹³⁾

단, 한국과 영국 간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사례가 <표 9>와 같이 방송제작사간 사적으로는 존재하기는 하나, 공동제작물을 협정을 통해 양국 국내물로 인정받고 시장 진출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영국과의 공동제작 수요 및 이를 공동제작협정을 통해 영국 국내물로 인정받고자하는 산업계 요인이 적다고 판단되며, EU 탈퇴 전과 비교해 한-EU 공동제작협정의 혜택을 활용한 사례가 한-영국 간 전무한 상황에서 실질적 불이익이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업계의 강력한 요구가 존재한다면 유예기간 동안 한-영국 공동제작협정을 별도 체결해 기존 혜택을

<표 9> 한국과 영국의 방송공동제작 사례(2011~2014년)

연도	사업체명	공동제작업체	프로그램명	전체편수(편)	프로그램시간(분)	자사투자율(%)
2014	광주문화방송(주)	LION TV(영국)	디스커버링 코리안푸드	10	300	7.7%
	광주문화방송(주)	OSF(영국)	꽃의 진화	4	120	5.6%
2013	목포문화방송	blink films	Korean food made simple	10	300	19.0
	(주)채널에이	OSF	리처드 래먼드의 빅 웨더	1	60	10.0
2011	한국교육방송공사	퍼니플릭스(영국)	똑딱 하우스	52	11	8.4

자료: KISDI(2007~2015),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비고: 2010년의 경우 공동제작 사례 없음. 2009년 이전은 지상파 방송 공동제작 현황 데이터만 존재하며 영국과의 공동제작 사례는 없음

13) 한-EU 문화협력의정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관련 혜택: 자국물인정 혜택, 촬영장비 일시반입 허용, 일시적 입국 허용(1년 90일 까지), 재정적 혜택 등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이다. 단, 이는 한-영국 FTA의 일부로 인정되어야지만 WTO 차원에서 MFN 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바, 한-영국 FTA 추진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Ⅵ. ICT 분야 정책적 시사점

앞서 ICT 산업 영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영국의 ICT 교역 및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ICT 분야에 미치는 실물 경제 차원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삼성SDS, 삼성디자인연구소, 삼성SERI 등이 영국을 기점으로 EU 시장에 진출해있는 한국 ICT 대기업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의 기존 EU 역내 법인 설립을 통해 누리던 혜택 및 한-EU FTA 혜택 등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 기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정부의 ICT 분야 대응 전략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데이터 이전 관련 현재 영국은 EU 회원국이기에 영국 내 소재 사업자들은 EU 시민의 데이터를 영국 내 데이터센터 등에 별다른 제약 없이 이전, 저장, 활용할 수 있었으나, EU 탈퇴 후에는 기타 EU 역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역외이전과 관련된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영국의 EU 탈퇴 시 EU 역내 정보가 영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역외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정보보호 적절성 심사 통과가 필요하다. EU 역내 개인 정보의 영국으로의 이전이 제약된다면 분명 영국을 EU시장 진출 지역 본사로 진출해있는 데이터 집약적 IT 또는 금융 기업에게 추가적 고민 사항이 될 것이며, EU 내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제약은 영국의 EU 내 IT 및 금융 관련 산업 허브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한국은 아직 EU 차원에서 적절한 정보보호 수준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EU 역내 국가에 지역 본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예기간 동안 얼마나 기존의 EU와의 경제 및 규제 통합의 혜택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협상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되며, 이전과 같은 수준의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이동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이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영국을 EU 지역 본사로 진출해있는 한국 IT 기업의 EU 사업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인 바, 유예 기간 동안 영국의 EU와의 협상 논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 예측하여 기타 EU 역내 국가로 EU 지역 본사를 이전하는 대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일명 미국-EU FTA), TISA(복수국간서비스협정) 등 통상 정책 차원에서 특히 ICT 신규 규범 관련하여 EU와 미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협상이 지연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브렉시트로 인해 통상 협상 논의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최근 타결된 미국-EU Privacy Shield가 영국의 EU탈퇴로 인해 TTIP 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며, TISA의 경우 인터넷 기반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범 논의의 향방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는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ICT 관련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EU 역내 디지털단일시장 정책의 경우 모든 EU 회원국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자체적 한계에 추가로 영국의 EU 탈퇴라는 변수까지 추가되어 정책 추진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내 규제 자유화 및 시장자유화 의지가 높은 편인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따라 향후 ICT 관련 주요 규제 이슈와 관련하여 EU가 더 경직된 방향으로 입장을 구축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EU 차원의 OTT 등 신규서비스 규제,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정책, 유러피언 클라우드 정책 등에서 변화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브렉시트로 인해 ICT분야 실물 경제 차원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안이 최근 추진 중인 ICT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 동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TTIP 및 TISA, 미국 및 EU의 ICT 관련 정책, 규제 논의 동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VII. 결 어

한국과 영국의 ICT분야 교역량 및 투자규모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ICT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나, 환율 변화 등 거시경제적 변수가 기진출한 ICT 기업의 성과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ICT업계 관계자들은 삼성, LG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업계를 제외하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고조 및 영국 및 EU 경기 침체가 악화될 경우 우리 ICT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영국을 EU 지역 본사로 진출해있는 일부 대기업들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EU 역내 교역 자유화 및 면세 혜택 등 제도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 및 유예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불안 요인이 존재하는 바, 사업 전략에 전반적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영국 투자자들의 불안정 자산 투자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 가능함에 따라, 영국이 한국 ICT 분야에 투자한 자본이 안전 자산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존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영국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한-EU FTA 보다 전향적인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사전 점검하는 등 영국과의 새로운 국제무역협정 체결에 철저히 대비해야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EU의 ICT 분야 규제 및 정책 동향이 기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로 인한 EU의 ICT 규제 및 정책 논의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주시하고, TTIP, TISA 등 EU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제무역협정 협상의 ICT 분야 규범 논의 동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국제금융센터 (2016. 6. 24), “Brexit 국민투표 결과 및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5. 26),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16 No. 17
-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6. 6. 16), “브렉시트 가능성과 우리 수출 영향”, <Trade Brief>, 2016. 6. 16, No.18.

[국외문헌]

- Computerworld (2016. 6. 24). “Global IT spending still expected to grow, but Brexit trimming the amount.” <http://www.computerworld.com/article/3088549/it-industry/gartner-the-it-spending-implications-of-brexit.html>
- Guardian (2016. 3. 4), “Britain’s tech sector overwhelmingly opposed to Brexit.”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mar/04/britains-tech-sector-overwhelmingly-opposed-to-brexit>
- IDC (2016. 4. 15). “Brexit Would Have More Impact on IT Spend in the U.K. Than in Europe, Says IDC.”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EMEA41191616>

[통계]

- 미래창조과학부, ICT 수출입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2007~2015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KOTRA,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 2014

[국제무역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한-EU 문화협정의정서